목포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팔 걷었다

싱가포르 여행사대표단
주한 SNS기자단 등 초청
팸투어 열고 목포 매력 알려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목포시는 지난 20~22일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 대표단과 주한 구미대양주 외국인 SNS기자단을 각각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해외 관광객들의 높아지는 한국 여행 수요와 싱가포르-무안국제공항 노선 재개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추진됐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춤추는 바다분수를 비롯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6월 개관할 예정인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등 신규 관광자원을 체험하며 외국인의 시선에 맞는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대표단과 주한 구미대양주 외국인 SNS기자단이 영화 ‘1987’의 촬영지인 목포 ‘연희네 슈퍼 골목’을 찾아 팸투어를 즐기고 있다. 〈목포시 제공〉

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약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글로벌 홍보영상을 비롯해 애플TV·넷플릭스 등 다양한 미디어 OTT채널을 활용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목포의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시는 앞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2022 생생문화제’를 비롯해 오는 6월부터 매주 금·토요일 열리는 ‘2022 목포해상W쇼’, 9월 말 열릴 ‘목포 뮤직플레이’, 목포 가을페스티벌, 10월 열리는 ‘목포 항구축제’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언론과 SNS를 통해 전세계에 홍보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관광산업이 주춤했지만 앞으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만족시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 11월까지 진행

신안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참여자 5명은 주 15시간, 월 79시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시급 9160원을 적용해 월 72만3640원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 17일 수행기관에 합동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민선7기 지방자치 선거공약이행 대상

법률소비자연맹 기초단체 평가

영암군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주관한 민선7기 선거공약이행 평가에서 지방자치 공약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민선7기 선거공약에 대해 상근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대학생법정치봉사단, 청년연합 등이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점수로 환산했다.

평가결과 영암군이 전남도 기초단체 중 공약이행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공약이행 성적 1위를 차지해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 최고(SA)등급에 이어 공약 이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1000여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 공약대상 선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7월 21~24일 회산백련지서…3년 만에 다시 만나는 무안연꽃축제

보트탐사·각종 체험 프로그램

‘연꽃향기에 반하다. 무안자연에 끌리다’

무안군이 7월 21일부터 나흘간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제25회 연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안연꽃축제가 펼쳐질 회산백련지는 사계절 관광명소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회산백련지 심벌마크인 수상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1층에 백련카페가 들어섰고 드넓은 백련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2층을 식물원 쉼터로 조성했다.

초록빛 연잎사이로 드러나는 백련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백일홍, 장미, 수국 등 꽃동산도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동물농장과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군은 달라진 회산백련지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무안연꽃축제를 위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함으로 채워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물놀이장 주변에 연꽃 미디어파사드 무대를 설치해 낮에는 물놀이를, 밤에는 여름밤을 즐기고픈 어른들을 위한 파티를 펼칠 계획이다.

연꽃길 보트탐사, 연을 소재로 다채로운 기능성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축제 기간 선보인다.

연 요리 경연대회, 어린이백일장·사생대회 등 부대행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박일상 축제추진위원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연꽃축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진도군 물김 위판액 1078억원 전국 2위

위판액 19%·생산량 14% 늘어

진도군은 2022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10만1167t을 생산해 1078억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는 지난해 8만8000 여t이었던 생산량이 14% 증가했고 위판액은 900억 원보다 19% 늘어 전국 2위의 명성을 유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지난해 10월 수온 상승 및 잇바디 돌김(곱창김) 작황 부진으로 다소 어려움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온과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고품질의 원초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해 어장별 해양환경 특성조사와 김 양식어업인 기술지도 위탁사업을 체결해 현장지도를 한 결과 또한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군은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김 품질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김 포자, 배양장, 채묘시설, 냉동보관시설 지원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정바다에서 생산돼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하고 몸의 독소 배출·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블랙푸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군 올 종패·수산종자 605만마리 방류

7개소에 뱀장어 방류 시작

해남군은 계속되는 어족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 방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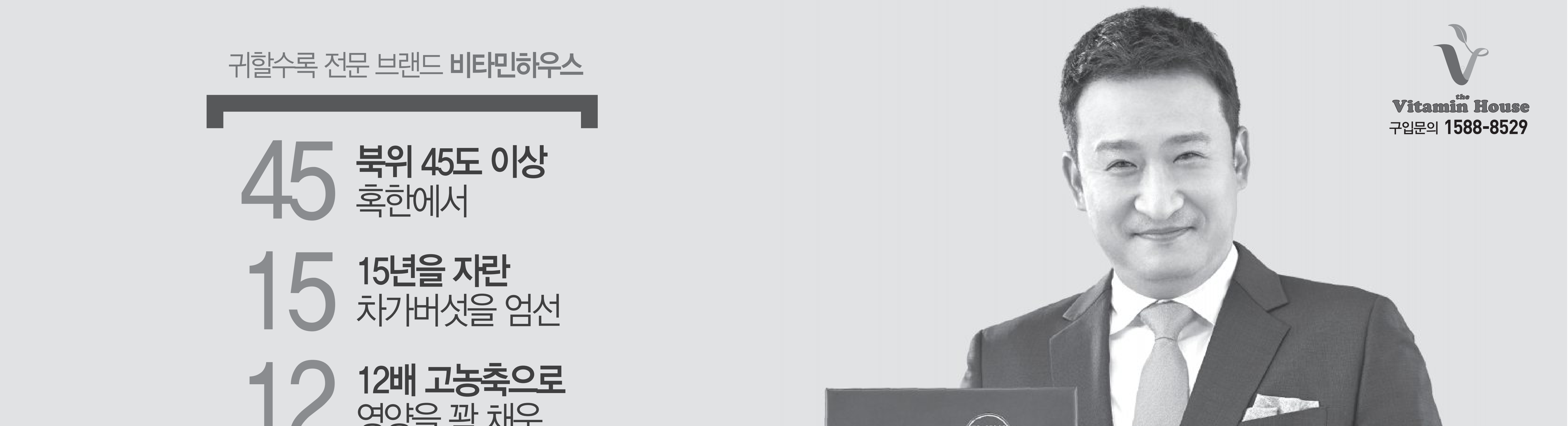
올해는 4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어촌계 연안 등 48개소에 바지락과 새꼬막 종패 2종 43t, 대하 등 수산종자 7개 품종, 605만1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품종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과 주민소득으로 직접 연계되는 내수면 어종 뱀장어와 자라를 비롯해 전복, 바지락, 해삼, 대하, 꽃게, 붉은쏨벵이, 보리새우 등 9종을 선정했다.

종자 방류는 자연산이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품종별 방류시기와 크기를 준수해 우량한 종자를 방류한다.

지난 16일 해남읍 등 내수면 7개소에 뱀장어 방류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사진〉

해남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55개 지역에 전복 종자 등 8개 품종 590만7000마리와 바지락 32 t 을 방류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원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어업을 금지하는 등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